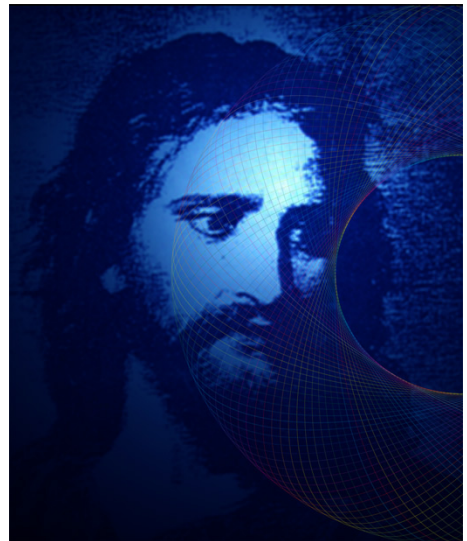


북한 복음화 운동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2009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2-18)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북한 복음화 운동

북한의 복음화는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가족 친척을 포함한 2400만 동족의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생활고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북한의 복음화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더불어 반드시 속히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이 과제의 심각성과 반세기 이상 북한 선교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생각할 때 그동안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미래의 선교를 위해 준비해 왔던 점진적이며 현실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다른 차원의 접근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인류 구속사의 흐름이 급하게 바뀌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지금은 주어진 언약에 따라 과거 다니엘 (단 9:2-3)과 엘리야 (왕상 18:41-45)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이다. 이제 복음의 거대한 물결이 이 폐쇄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북한의 복음화의 첫 단계인 아래의 연합기도 계획과 이에 따른 모든 활동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북한의 복음화를 이루게 할 큰 믿음과 각성의 첫 발걸음인 것이다.

2009년 7월 15일

기도인연합 추진위원회

목차

1. 연합기도회 2009 에 부치는 글

이와 같은 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 홍명관/ 한국연합회장 1

우리동족을 위한 기도운동 □ 김동은/ 미주교회협의회장 3

사람이 측량 못하는 일을 위하여 □ 김명호/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 전 삼육대학교수 4

한국인을 위해 남겨두신 선교지 □ 권정행/ 북아시아태평양 양지회 세계선교부장-세계전도부장 5

주님!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 김선억/ 은퇴 목사 7

북한의 복음화 □ 기도인연합. 8

2. 연합기도운동

연합기도운동의 의의를 다시 생각하며 □ 성선제/ 동경 한인교회 담임 9

연합기도회를 앞두고 -7월연합회보 서문 □ 한규형/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10

1 연합기도회 2009에 부치는 글

이와 같은 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홍명관/ 한국연합회장

유대인 관리로서 페르시아 수산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에서 동생 하나니를 비롯한 몇 명의 동포들이 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패망한 고국의 재건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는 그 땅에 남아 있는 동포들과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느 1:3)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비보였습니다. 바벨론 침공이후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세 차례의 중건령을 통해 이제 고국이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그에게는 억정(抑情)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국의 동포들이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4절)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울지만 앉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 1:11).

당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었던 통치자로부터 은혜를 입어 고향에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아서 황폐한 조국의 성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눈물을 뿌리며 드린 열렬한 기도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서 이뤄졌습니다. 2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고국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는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 호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 재건을 위해 필요 되는 재목까지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실로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149).

사랑하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저 철의 장막에 갇혀 있는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날마다 북한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비보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격을 넘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복음의 불모지, 흑암의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고국에서 동포들이 큰 환란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다 소화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미주 중동부 및 서부야영회’와 ‘기도인연합’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 연합기도회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यो, 연합하여 기도하는 재림교회와 부흥하는 길ियो, 불쌍한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는 길ियो,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복음사업을 마치고 그리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의 동참하실 성도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그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 1:5). 그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진 기도였습니다.

둘째,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6절). 그는 민족의 범죄함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 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9절).

넷째, 그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11절). 즉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향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민족의 재건에 동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에 책임지며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연합기도운동에 우리 모두 통곡의 가슴을 갖고 참여합시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헌신의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적처럼 우리 시대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1).”

아무쪼록 북한 복음화를 위해 연합기도회를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과 기도회에 참여하

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우리동족을 위한 기도운동

김동은/ 미주교회협의회회장

얼마전 출장후 귀가하는 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속으로 미국 특수 부대의 전략과 방향을 연구하여 국방부에 추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는 그에게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까지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과 현재 미국이 관련되어 있는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경직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기다리며 주목할수 밖에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을까요? 북한을 돕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고 도울수 있는 뜻있고 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적어도 비행기에서 만난 이 방면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한 전문가는 그렇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일에 관해서는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수 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너무 자주 그리고 충격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의 이해할수 없는 언행과 도발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와 분노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자세도 포기 내지는 무관심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특별한 기도의 불꽃이 곳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것

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북한의 수많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운동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초 남가주에서 350여명의 목회자들이 범교회적으로 모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를 내걸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은 “대북관계와 관련한 사회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핵 문제 등 대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남북통일과 대북관계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역한다면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사랑으로 사역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특히 김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첫 손에 꼽았다. 전문가들이 각종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문제를 푸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는 “현재 만날 수조차 없는 북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기독교 청소년들의 부흥과 활동을 위한 목족을 가지고 존재하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는 3천여 남한 청년들과 5백여 탈북 청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는 중보기도 사역으로 2007년 시작되어 남한의 영적 부흥과 북한 구원,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이 사역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도회는 물론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처소’ 들을 개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어 열열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 재림 성도들이 계획하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인 연합과 미주 야영회 기간중에 있을 연합기도회와 8월 한달간 있을 범지역적 연합기도회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우리들은 북한의 현실이 과거 어느때 보다 어렵다고 해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수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 사경에 처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사한 곤경에 놓인 북한의 동포들을 무심하고 냉정하게 철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 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람이 측량 못하는 일을 위하여

김명호/ 기도인연합 운영위원-전 삼육대 교수

사람들은 배우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 존재들이다. 칠판지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해도, 옛날의 칠판지의 삶의 형태나 지금 칠판지의 삶의 형태가 거의 같다.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 해도 여전히 옛날 돌고래가 살던 모습처럼 그냥 물에서 돌고래로 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옛날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이 세상을 본다면 아마도 별유천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관찰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은 교만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고전8:1).

지식이란 주위의 혼한 자료들을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꾼 것을 정보라고 하고, 이 정보를 사람이 받아들인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많은 추측을 하고 예측도 한다. 그것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만일 그것이 맞았을 때는 아마도 억제할 수 없는 짜릿한 흥분을 만끽할 것이며 우쭐해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어떤 영이라도 붙어 역사한다면 곧장 예언자가 되고 점쟁이가 될 것이다. 즉 집게 점쟁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측량하려고 한다. 그런 측량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학문과 지식의 합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도 한다. 모두가 지식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계시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3:11). 측량할 수 없게 한 그것을 측량하려는 것이 사람이 가진 지식이 시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두셨는가? 왜 김정일의 북한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것이다.

우리 재림성도들은 이런 의문에 어떤 답을 찾

으려고 예언적 해안을 번득거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한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런 측량할 수 없게 한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둘러놓은 은혜의 대기를 호흡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런 기도 중에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별이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교지역에서 만남을 무릅쓰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열망하였다(롬9:1-3).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동족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지역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 그들의 노력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결실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게 한 그것을 측량하여 이런저런 억측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 기도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우

리가 전할 수 있는 곳에는 사람이 가든지 보내든지 전하게 하고 그럴 수 없는 곳에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도인연합에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많은 교우들이 이 일에 연합하여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리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약속하셨다. 꾸준히 열렬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시는 그 때에 이루어주실 것이다. 아멘.

한국인을 위해 남겨두신 선교지

권정행/북아시아태평양지회 세계선교부장-세계전도부장

온 식구가 누워있는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젖히며 신도 벗지 않은 채 들어서는 이들이 있었다. 내무서원들이다.

“동무들 오늘 왜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오?”

성인이 된 아들도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와 한이불 속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족을 대표해서 말했다.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식구가 다 아픈가?”

“그러게 말예요. 식구들이 모두 아파서.”

“거짓말 마시라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투표하러 안 나온 거지, 내래 다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투표율은 100%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식일을 핑계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립(가명)의 가족은 눈에 가시였다. 게다가 아이들도 자라나는 데 그대로 내버려두

어서는 안될 것 같아 다짐을 받았다.

“오늘 안으로 투표 안 하면 재미없는 것 알지요? 같이 가십세다.” 반항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해가 넘어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어머니와 큰 아들을 집을 나서서 길을 재촉하는 내무서원을 따라가야 했다.

안식일의 투표를 피하기 위해 돌부리가 있어도 돌아가고 길에 물이 약간만 고여있어도 돌아서 갔다. 앞서가는 내무서원은 걸음이 늦다고 뒤돌아보며 재촉을 한다. 내무서원을 따라가는 두 모자는 해가 빨리 저물기를 기도드렸다. 엉뚱한 기도라고 생각했으나 그 길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온 하늘을 가득 덮었다. 아직 시간으로는 저녁이 안되었지만 어둡기로는 한 밤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서 몇 해 전에 탈북한 재림교인의 이야기로서 실화를 근거로 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이다. 지금은 상황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재림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의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도 아니면서 선교사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선교의 일선에 나서는 데에는 모든 조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첫 번째, 한국은 반도국가이기에 분명한 국경선이 형성되어 있어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음으로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 게다가 농경민족은 토지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아 다른 문화를 접할 때는 항상 이질감을 느낀다. 두 번째, 한국인은 이상하리만큼 외국어를 배우는 일에 너무나 겸손하다. 역시 단절된 국경을 가진 나라의 특징으로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항상 이동하는 유목민족의 음식이 대부분 음식이 마른 음식임에 비해 정착민족인 농

경민족 특별히 한국인의 음식은 장류를 중심으로 한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의 발효 식품에 익숙해져 미각이 쉽게 국제화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선교임무를 수행함에 다소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문화를 바꾸지 않고, 음식을 바꾸지 않으며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지 않고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인에게 남아있다. 바로 북한이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에 의해 모든 종교가 말살된 그야말로 백지와 같아서 누군가 먼저 들어가 색깔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북한이다. 안타깝게도 근년에 식량 부족으로 200만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몽골보다는 여덟 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그래서 남한의 모든 교단들이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북한 선교라는 말 대신 대부분의 교회들이 북한교회 재건운동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새로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교회들만 재건해도 북한에 넉넉한 숫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북한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난감하는 일이 있다. 반드시 북한의 복음화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때는 북한 문이 당장에 열릴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한랭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금강산이 활짝 열렸는가 했더니 하루 아침에 닫혀 버렸다. 개성의 문이 활짝 열렸는가 했더니 하루 아침에 닫혀 버렸다. 백두산은 열린다 열린다 하다가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선교를 이야기하면 한 순간은 그 당위성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다가도 그 결과가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문은 열려야 하고 반드시 열리고야 만다.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

해서 열려야 한다. 봄이나 여름이 하루 아침에 오지 않는다. 영하의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져 봄인가 했더니 다시 영하로 내려간다. 들판에 푸른 풀이 돋는가 하더니 갑자기 흰 눈이 내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울타리들에 개나리가 셋노랑게 피고 나도 모르게 봄이 한 걸음씩 몰래 다가오는 것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반 걸음 뒤로 나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활짝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북음의 문이 더 굳게 닫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미가의 가사처럼 더 신속하게 북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사람은 예측 능력이 부족하여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항상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그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 어떤 이들은 자원을 넉넉히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늘 창고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준비된 사람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가진 이들을 불러모아야 하고, 사명감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다보면 북한선교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이 나 자신 밖에 없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꾼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해 주께서 부르

실 때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주님! 북한에 북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김선억/ 은퇴 목사

주님! 북한에 북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5개월 동안 막혔던 교통이 열려 북한대회 김점목 서기 겸 회개를 통해 교회 연금과 십일금을 바친 그 다음날 뜻밖에 연합군의 후퇴에 밀려 남하해 피난민 생활을 하는 동안 북한의 신자들과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였다.

북한에서 월남한 사역자는 임성원 목사(북한대회장), 김 봉덕 목사, 박원실 목사, 최성훈 목사 김선억 5명이었다. 1964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삼육대학에서 목회 사역하는 동안 매년 연말마다 북한내 동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하장을 계속 보냈으나 몇 이산 가족의 회답을 받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했을 뿐이다.

1986년부터 3년 동안 홍콩에서 사는 동안 계속 중국을 다니면서 북한소식을 알아보며 북한 방문의 기회를 찾다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기독교도연맹 서기장, 봉수교회 담임 목사, 국회의원, 수령 외교 보좌관, 해외동포 원호위원장들을 만나 북한내 교회와 사역자들 이산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 보았지만 10여 가정들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고 사역자와 성도들 중에서 순교하신 열다섯 분의 소식을 확인한 것이 한국 연합회에 보고되어 한국 재림교회 선교 100주년 역사에 기록 보존 되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알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바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북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확인하여 우리

교우들과 이산 가족들 북한에 살아 있는 가족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려고 한다.

주님!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오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북한의 복음화

분단의 반세기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의 동족과 함께할 반세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지껏 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만큼 점점 더 그들이 복음을 접할 시간과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기억속에 사라져 갑니다. 복음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진채 그렇게 지나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림진리가 처음 이땅에 들어온 곳입니다. 초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활동하며 재림 신앙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그 축복의 땅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것은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기도의 제단에 모이십시오. 기도의 향연을 올립시다. 마른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복녕까지 이르도록 우리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에 모이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복음의 기별이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에 이시대의 재림기별이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앞 당겨질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09년 8월 기도인연합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淨)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 주제들에 대한 명상, 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맛볼 때, 사도는 그것을 “내세의 능력” (히 6:5) 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낸다. — 교회증언 5권, 740(1889).

2 연합기도운동



연합기도운동의 의의를 다시 생각하며

성선제/ 동경 한인교회 담임

언제나 영적 사업은 영적으로 각성한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

동한 이 시대의 상황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사업을 사랑하는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방전도의 불을 부쳤던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그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였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이었다. 다메섹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은 사울도 “기도하는 중” (행9:11) 이었다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새로운 복음시대의 위대한 일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재림운동의 태동을 지도하고 번성케 한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은 한 적은수의 소박한 젊은 여인들의 연합기도 모임에서였다. 그 기도모임에 참여한 엘렌 하몬은 재림운동을 지도할 첫째 시를 보게 된것이다.

우리의 신앙경험 가운데 가장 큰 영적경험은 기도하는 경험이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은 산 모본으로 말세를 사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영의 운동은 영으로 시작되며 영으로 마쳐질것이다. 연합기도운동 이것은 매우 적절하며 성서적이며 주께서 이 시대에 바라고 계시는 영적운동이다. 장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도 다니엘과 그의 세친구들의 연합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나이다” (단 2:16).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으며 연합하여 기도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마지막 시대의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이 연합기도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번 미국에서 시작된 연합 기도운동은 무엇보다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 지는 연

합의 의미가 그로별 시대에 더욱 새롭게 이해되는 세계적인 영적운동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림운동은 세계적인 것이며 기도운동도 그러한 성질이어야 한다. 이 일을 계속하고 이 일이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슥4:6) 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 일에 더욱 우리의 관심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것은 기도의 영이며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들어 내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계속해야 할 것이다.

치료와 구원과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국경이나 잠겨진 문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로 감싸줄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미칠 수 있다. 중보의 정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엘렌 화잇은 이 경험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교회증언 9권 126) 고 하였다.

교회의 변화중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변화이다. 지난 4월 새로 부임한 교회의 활성화에 주의 능력이 절실함을 인식하여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틈있는 대로 격려하였다. 여러 장기결석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안식일 오후 특별기도 모임과 주중 두 번 있는 기도모임에서 기도를 계속하였다. 기적은 일어났다. 40년 그리고 30여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두 분이 출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본인도 주변 교인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감사드렸다. 나는 이 일이 여러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진것을 믿는다.

연합 기도운동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드린다.

이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에게 계속 주의 영이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연합기도회를 앞두고 - 7월 연합회보 서문

한규형/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연합기도운동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이 운동 초기부터 동참해 온 추진위원들, 현재 운영에 함께 하는 소수의 동역자들, 지금 운동 확산에 함께 하는 모든 기도회 회원들도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기도운동에 간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에 여전히 이 운동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함 때문에 참다운 주체를 잇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지 못할 때는 주의 사업의 주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할 때입니다. 주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꾸준히 자신을 낮추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체를 간과할 때는 생의 분주함 가운데 일의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없으며 정말로 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데 거듭 실패할 것입니다.

주의 사업의 주체를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것의 결과는 영적 중간지대에 처하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어려움이 올 때 이 중간지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소수의 진리를 따르기 보다는 다수의 오류를 따를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대를

역행할만한 바른 열정이 없으므로 결국 쉬운 오류를 따를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신앙의 중간지대에 속하지 않고 침노하는 자의 천국(마11:12, 눅 16:16)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기간 우리의 기도운동에 꾸준한 확산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처한 곳은 다르나 기도로 마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8월부터 우리 모두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복한의 복음화를 위한 범지역적 연합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면 현재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운동의 주체를 재삼 인식하여서 과거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사정을 뒤로하고 이 일에 연합할 때입니다. 주안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통회함과 감사함으로 영적세계를 감동시킬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될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202(영문)(1890).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대쟁투621)

연합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영적 건강, 고상한 사상, 고결한 품성,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이기심과 악한 추측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대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사람들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늘 우주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앞에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 줄 것이다. 그대들이 보여주는 모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88)



연합기도 운동

이 운동은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이를 때까지 기도의 능력과 확산하는 성도들의 연대(連帶)로 (1) 하나님과의 영적관계의 확립과 (2) 성도간 믿음의 동역자로서 영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함께 새롭기 위한 확산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신실한 기도.
이것은 성도간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큰힘이 되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연합기도 운동에 모두 함께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인 연합

© 2007 All rights reserved prayercoalition.com

P.O. Box 910152 San Diego, CA 92121 * 619-736-4006